



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|--|---|
|  인천광역시 | | 보 도 자 료 | |  |
| | | 배포일자 | 2022년 11월 30일(수) 총 2매 | |
| 담당 부서 | 여성정책과 | 담당자 | • 여성권익담당 최미나 ☎440-2756 • 담당자 조이주 ☎440-2759 | |
| 사진(이미지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|
| 보 도 시 점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

불법촬영 OUT! 인천 대학가 불법촬영 뿌리뽑는다!

- 인천시, 29일 대학 내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및 합동점검 실시 -

인천시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가 불법 촬영 근절에 나섰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9일 불법촬영 근절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, 인하대에서 경찰 및 1366 인천센터와 함께 불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시는 불시점검을 위해 경찰·인하대 학생들과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촬영 탐지카드를 활용, 화장실·탈의실 등의 내부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으며 불법촬영 탐지카드 300매를 학교 내 남·녀 화장실에 비치해 누구나 범죄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.

또한,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1366 인천센터 전문상담가가 비밀 개별상담 실시 및 대응방법 홍보 등 캠퍼스 내 성범죄 불안감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.

점검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“학교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보람있고, 앞으로도 이런 활동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붙임>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사진

